

중국, 작물 병해충 피해 증가 예상

올해 중국에서는 병해충에 의해 3억8천만ha의 농작물 재배면적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중국농업기술진흥원(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promotion center)이 밝혔다. 이는 작년에 비해 4% 증가한 면적으로 중국의 농약관리국이 월동병해충과 재배면적, 그리고 기상정보를 종합해 예측한 것이다. 중국에는 해충 830여종, 병해 720여종, 그리고 60여종의 잡초와 20여종 이상의 설치류 등 1,700여종의 농작물 병해충이 있다.

벼 재배면적의 피해는 작년보다 5% 증가한 9,300만ha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해충인 멸구는 2,800만ha, 흑명나방은 2,200만ha, 주요병해인 벼 잎집무늬마름병은 1,900만ha에 피해가 예상된다. 밀의 경우는 2010년과 비슷한 6,700만ha의 피해면적을 예상했으며, 주요 병해충인 진딧물류와 줄녹병으로 각각 1,600만, 300만ha의 피해를 예측했다.

중국은 이밖에도 옥수수, 목화등의 작물에서 각각 6,900만ha, 2,500만ha 등의 피해를 예상하고 병해충에 따른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아르헨티나, 농업용 화학자재 수입량 대폭 증가

2010년 아르헨티나의 농약·비료수입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16억달러(한화 1조9천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현지사정상 통계자료에 비료를 농약에 포함한 것으로, 비료가 매우 큰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현지조사기관(IES)은 밝혔다. 분야별로 감소한 것은 없었고 물량으로는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가뭄에 의해 큰 손해를 입었던 농민들이 올해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함에 따라 재배면적을 크게 넓혔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은 전년대비 28.8% 증가한 340만톤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가로는 전체 수입량 중 1/4에 해당하는 중국(24.8%)을 필두로, 미국(20.2%), 러시아(17.2%), 그리고 브라질(7.2%)이 뒤를 이었다. 수출은 40% 이상 감소한 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브라질, 2010년도 농약시장 성장 신기록

브라질 농약시장이 전년대비 9% 성장한 72억달러(한화 8조6천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의 기록을 갱신한 것이라고 브라질 현지의 농약산업무역협회(Sindag)가 전했다.

전체시장 중 제초제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작년과 비슷한 25억달러(한화 3조5천억)를 차지했고, 살균제는 21% 증가한 21억달러(한화 2조5천억)를 기록하며 살충제와 비슷한 규모를 나타냈다.

수입량은 23만톤(유효성분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아르헨티나로 전체 수입량 중 각각 19.7%와 19.6%를 기록했다. ㉞